

‘초겨울 어느날’ 도자기 초대전

전주기린미술관, 15일까지 무형문화재 29호 사기장 토광 장동국 명인 초대 30여점 전시

전주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초겨울 어느날’ 도자기 초대전으로 무형문화재 29호 사기장인 토광 장동국 명인을 초대하여 진귀한 도자기 30여점을 전시한다.

도자기의 고장인 이천이 고향인 토광 장동국 사기장은 어려서부터 늘 친구들과 흙을 보고 만지고 자라면서 흙의 매력에 빠졌다. 1972년 고려도요에 입문해 광주요, 해강청자연구소, 석촌도예에서 도자기를 배우며 실력을 닦아 전통도자기를 똑같이 만들고자 노력하며 우리 전통도예의 발자취를 이어오고 있다.

1989년 토광도예를 설립하며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갈고 닦으며 자신만의 색깔을 빛내기 시작하였다. 일본, 중국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우리 전통의 빛깔이 묻어나는 도자기를 선보이며 우리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도에 입문 5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만들어진 전통도자기의 명맥을 이어서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 29호 분청사기장으로서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많은 대중에게 알리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기린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도자기의 종류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구분되며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달항아리

청자는 철분이 조금 섞인 백토로 만든 형태 위에 철분이 1~3% 정도 들어 있는 장석질 유약을 입혀 1,250~1,300도 정도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낸 자기이며 이 때 유약의 색은 초록이 섞인 푸른색으로 비취색과 흡사하고 투명에 가까우며 태도의 색은 흐린 회색이기 때문에 회색이 바탕이 된 녹색이 되며 고려인들은 이를 비색이라 했다.

분청사기는 회색 또는 회흑색의 태도 위에 정선된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씌

워 환원염에서 구운 조선 초기의 도자기이다. 조선시대의 분장기법은 무늬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며, 그릇 표면을 백토로 씌워 백자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법이 고안되어 윙동적이며 활발한 분청사기만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백지는 고려 초기부터 청자와 함께 일부가 만들어졌으며, 그 수법은 계속 이어져 조선시대 자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토광 장동국 작가의 백지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표면과 함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장동국 사기장은 “작업에 몰두하여 오늘보다 나은 인정을 받고 도예인의 한 사람으로 미래에 대한 책무가 그만큼 더 늘었다는 것을 느끼며 여기 작품을 내어 놓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토광 장동국 사기장은 대한민국 예술전 특선, 대한민국 종합미술대전 총재상, 종합 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국제미술대회 최우수상, 인천 국제도자기 Expo 특선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21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현재 토광도예연구원장, 국제미술작가협회 김제시지부장, 21세기미술협회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중국연변대학교 미술대학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립예술단 목요일예술무대 향연 펼쳐진다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익산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1 익산시립예술단 목요일예술무대를 12월 3주 동안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오후 7시 30분에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각 예술단이 매주 다른 주제로 공연을 진행한다. 첫 번째 공연은 2일로 익산시립풍물단(예술감독 김익주)의 ‘F.E.S.T.A(축제)’이다. 이 작품은 마칭 & 브라스와 함께 신나는 축제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연은 9일에 진행되는 익산시립합창단의 ‘쉽, 내일을 위해’로, 기쁨, 위안, 희망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크리스마스 캐롤

및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곡들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마지막 공연은 16일로 익산시립무용단(예술감독 박종필)의 ‘양국 소세양의 세월(世越)’, 춤으로 풀다이다. 이 작품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소세양의 일생을 엿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각양각색으로 준비한 이번 목요일예술무대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티켓이 배포되고 이후 익산시립예술단 유튜브를 통한 관람이 가능하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북도국제교류센터, 한·일 민간 공공외교 활동 펼쳐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외교부 공모 사업인 ‘2021년 한·일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공외교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소문난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일 양국의 민간 공공외교 활동을 시행했다.

‘소문난 책방’은 ▲음악회는 ‘목소리의 형태’, ▲요리실습은 ‘이주 특별한 요리 이야기’, ▲전통공예 체험은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사진공모전은 ‘너의 이름은’ 총 4개의 사업으로, 책 제목을 차용해 사업명을 지어 한국과 일본의 책이 모두 있는 서점을 상호 간에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비유했다.

▲‘목소리의 형태’는 비대면 음악회로 한·일 양국인이 비대면화상회의술투선으로 참석해 합주를 하는 사업이다. 31명의 참가자를 5개 조로 편성, 개인별 연주하고 최종완성곡을 모아 지난 10월 24일에 공개하면서 참가자 모두가 환호하는 음악회가 됐다.

▲‘이주 특별한 요리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 요리인 ‘비빔밥’, 일본의 전통요리인 ‘케이한’을 서로 만들어보며, 양국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었다.

▲‘우리동네 예술가 두 사람’은 비대면 방식

으로 한국 전통 공예 강좌를 송출하고, 양국 참여자들이 실시간 함께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약 140명이 참여해 사전에 발송된 모시조각보, 한지대반 키트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행사 만족도를 높였다.

▲‘너의 이름은’ 사업은 지금은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한·일 양국의 유명 명소의 사진을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의 SNS 사진 공모전이다.

지난 10월 17일 마감된 접수에는 총 166명이 487장의 사진을 응모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10월 30일 본선을 개최해 우수 작품 50작에 대한 시상식을 완료했다.

한편, ‘소문난 책방’ 참여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온라인 전시회가 11월 30일부터 열렸다. 대면 행사가 어려운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한·일 양국의 국제적 교류를 제고 하기 위해 노력했던 본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회는 전문 플랫폼인 오픈부스(<https://www.openbooth.space/bookstore>)를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도 오는 12월 10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유효상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15일까지 제2기 대학생 SNS 기자단 모집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022년도에 활동할 제2기 대학생 SNS 기자단 모집 원서를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2기 대학생 SNS 기자단은 취재 분야(글, 사진)와 영상 제작 분야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전북 지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활동하는 국립전주박물관 제2기 대학생 SNS 기자단은 활동동영상, 활동증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기지는 연말 국립전주박물관장상을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홍보 담당자는 “2021년 신설된 국립전주박물관 대학생 SNS 기자단은 박물관 전시와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재를 통해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전북 지역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도민 대상 6~7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서

전주대학교가 음악학과 주관으로 오는 6~7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제2회 전주대 천잠 실내악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잠 실내악 축제는 음악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들이 주축이 돼 선보이는 연주회로, 지난 6월 처음 개최해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이번 2회 천잠 실내악 축제는 ‘진정한 지역 중심의 음악축제’의 가치를 내걸고 개최되는 지역 문화 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총 50명의 차세대 연주자들이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다채롭고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 피아노, 현악, 관악 앙상블 등 다양한 구성의 실내악 팀이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등의 전통 클래식 레퍼토리부터 마블렌 드링, 로스 로이, 구이 바코스 등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유튜브 온라인으로 공연이 생중계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 모금행사도 진행된다.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기부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사용된다.

천잠 실내악 축제 예술감독을 맡은 이주용



교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면서도 깊이 있는 클래식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며,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지역 예술인들에 의한 진정한 지역 중심의 음악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